

## *Pygmalion* 볼로쉬노프의 언어철학에 입각한 고찰\*

엄 태 용  
강원대학교

### I. 서론

조지 버너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희곡 『피그말리온』(*Pygmalion*, 1912)은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와 뮤지컬로도 각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희곡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화와 뮤지컬의 제작자들이 두 남녀 주인공의 관계를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독특한 로맨스로 윤색하고 해피 엔딩의 결말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자 쇼의 관심은 계급과 언어의 상관성을 제시하고 교육에 의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데 있었다. 쇼는 대중들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초판본(1916)의 본문(text)과 후일담(sequel)의 일부를 수정하고 스스로 각색한 영화 시나리오의 추가 장면들을 포함하여 『피그말리온』의 최종본(1939)을 완성한다(McGovern 9-10). 그리고 이 최종본이 1941년에 펭귄출판사(Penguin Books)에서 표준판본(Standard Edition)으로 출판된다(McGovern 10). 에릭 벤틀리(Eric Bentley)는 이 극에 대해 “음악적인 말과 재치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034473)

넘치는 말이 끊임없이 흐르는”(with a constant flow of verbal music and more than verbal wit. 148) 언어의 향연장이라고 평한다. 쇼에게 비판적인 보수비평가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조차 “『피그말리온』은 잉글랜드의 계급체제에서 언어의 역할에 관한 쇼의 관심을 실증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Pygmalion had received considerable scholarly attention because it demonstrates Shaw’s interest in the role of language in the English class system. Abla 80 재인용)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고는 『피그말리온』의 풍부한 대사 속에 담긴 다양한 언어현상을 관찰하면서 극의 주제적 초점이 로맨스가 아닌 언어, 계급,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판본(1941)의 희곡 본문, 서문(preface), 후일담을 망라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쇼의 『피그말리온』을 연구한 국내의 논문들 중 언어와 계급의 문제를 주요 주제로 택한 경우는 기대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국내의 학위논문들은 여성문제를 다룬 경우가 대다수이고 언어 혹은 계급의 문제를 다룬 논문은 5편 정도이다. 그중에서 이재원의 석사학위논문 『조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에 나타난 언어와 매너의 문제: 주요 등장인물의 상징 투쟁을 중심으로』(2002)가 극의 플롯, 인물들의 갈등, 언어와 매너 등을 부르디외(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의 개념을 빌려 장황하게 분석함으로써 언어와 계급의 문제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 희곡 『피그말리온』을 분석한 20여 편의 국내 학술논문들 중 언어와 계급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경우는 6편 정도이다. 이 중 황훈성(Hwang Hoon-Sung)의 “The Dramatization of Habitus: A Bourdieu Reading of Pygmalion”과 윤소영의 「Pygmalion에 나타난 몸의 아비투스」는 언어, 계급, 문화의 관계를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네 가지 자본의 개념을 통해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이밖에 김현아와 나은하의 논문 등이 『피그말리온』과 관련하여 언어, 젠더, 교육, 계급, 상징적 질서 등의 관계에 대해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논문들은 배우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구체적인 언어현상들과 발음에 관해서는 관찰과 분석이 미흡하여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

었고 그만큼 쇼의 리얼리즘(realism)에 대한 통찰도 반감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해외의 논문들 중에서는 아블라(Ahmed Kadi Abla)와 일렘(PR. Serir Mortad Illhem)의 “Language as a Marker of Social Status in Shaw’s *Pygmalion*”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지위의 지표가 되는 언어의 특성을 조명하기 위해 『피그말리온』의 무대에서 발화되는 코크니(Cockney)의 사회적 성격과 발음상의 특질을 분석하고 언어교육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극복에 대해 타진하면서 언어, 교육, 계급 및 사회구조의 유기적 관계를 논하였다. 머글스톤(Lynda Mugglestone) 또한 “Shaw, Subjective Inequality, and the Social Meanings of Language in *Pygmalion*”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결정자로서의 발음, 언어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계급적 지표로서의 깨끗한 복장 등을 사회경제학적 비판의 입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요코 카이저(Yoko Kiser)는 “*Pygmalion: Grammatical Usages*”라는 논문을 통해 희곡 『피그말리온』과 각색된 영화 『나의 요조숙녀』(*My Fair Lady*)에서 듣게 되는 코크니의 음운 및 어법을 표준영어(standard English)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이란(Iran) 학자의 논문 “The Play of Codes and Systems in *Pygmalion*: Bernard Shaw and Roland Barthes”는 롤랑 바르트의 다섯 가지 약호를 분석의 도구로 삼아 『피그말리온』의 언어, 교육, 문화, 사회적 계층이동의 소재들을 색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처럼 해외 학계에서는 『피그말리온』의 대사에 나타난 구체적인 발음과 언어현상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계급, 사회구조, 약호 및 상징 등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국내 학계보다 더 활발하였다.

그렇지만 이 극의 무대에서 발화되는 대사들의 다양한 언어현상들을 선구적인 언어학이론들에 비추어 관찰하고, 이를 통해 언어, 계급, 이데올로기의 유기적 관계와 인간의식의 고유한 현상까지 탐구하려는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로맨스를 거부하고 일라이자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립시키려 한 극작가이자 사상가로서의 쇼의 심오한 의도를 찾아내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

1) Hossein Pirnajmuddin and Fatemeh Shahpoori Arani.

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즐고 『『피그말리온』: 사회언어학적 고찰』(2019)<sup>2)</sup>에서 현대 언어학의 개척자들과 대표적인 사회언어학자들의 이론에 비추어 『피그말리온』의 다양한 언어현상과 계급 및 사회현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선구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론과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실어증이론에 비추어 『피그말리온』의 대사에서 두드러지는 주요 기호들을 분석하였고, 또한 사회언어학자 윌리엄 라보프(William Labov), 피터 트럿길(Peter Trudgill), 바질 번스타인(Basil Bernstein)의 대표 저작들을 참고하면서 극중 인물들의 상이한 발음과 언어적 약호가 계급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소쉬르와 야콥슨의 이론을 통해서도 언어현상의 이면에 담긴 사회적 함의와 역사적 맥락을 타진할 수 있었으나 그 이론의 계급적 구체성이 부족하여 다소 추상적인 진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도시방언(urban dialect)의 다양한 발음과 표준발음 간의 차이를 계급적 관점에서 분석한 라보프와 트럿길의 연구성과는 『피그말리온』의 무대에서 발화되는 코크니 발음의 계급적 속성을 고찰하는 데 유용하였고, 번스타인의 정교한 약호(elaborated code)와 제약적 약호(restricted code)<sup>3)</sup>는 인물들의 발화 속에 담긴 특정한 단어 및 화법의 사회적 관계와 계급적 격차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였다.

예의 언어학이론들은 『피그말리온』에 내재된 쇼의 언어적 리얼리티(reality)가 사회경제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언어를 매개로 한 이데올로기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부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물론 트럿길과 번스타인 등은 계급에 따른 언어의 차이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회적

2) 『영어영문학연구』 61.4 (2019.12)

3) 번스타인은 화자가 발화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통사적 요소들을 사용할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언어적 약호들을 문형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교한 약호와 문형을 예측하기 쉬운 제약적 약호로 구분한다(Bernstein 76-77). 이 두 약호는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구조를 반영하는데(77),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중상류층은 정교한 약호를 선호하고 공동체와의 동일시를 중시하는 하층 계급은 제약적 약호에 익숙하다(108-09).

관계와 구조를 상징화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sup>4)</sup> 하지만 특정한 발화 혹은 언어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징화되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먼저 언어가 지닌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러시아의 언어학자 발렌틴 니콜라예비치 볼로쉬노프(Valentin Nikolaevič Vološinov)<sup>5)</sup>의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을 고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볼로쉬노프가 말하는 기호, 랑그, 발화, 억양, 사회구조, 이데올로기 등을 『피그말리온』의 텍스트와 파라텍스트(paratext)에 접목하여 분석한다면 언어, 계급, 이데올로기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주의적 인과성에서 벗어난 인간의 고유성과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또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언어는 결국 대상을 인간의 의식 속에서 기호화시켜 신체기관의 발화로 표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기에 그 속에는 생리, 개성, 젠더, 계급, 상징, 문화, 이데올로기 등이 어떤 식으로든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의 『피그말리온』이 이러한 언어의 총체성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조명하기 위해 볼로쉬노프의 언어철학에 비추어 세심한 텍스트 관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

4) 번스타인은 발화의 약호들이 사회적 관계를 계급적으로 구분하여 상징화하는 양상을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계급체계의 효과 중의 하나는 정교한 약호들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One of the effects of the class system is to limit access to elaborated codes. Bernstein 176)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릿길은 더 나아가 “언어적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linguistic differences not only arise from social inequality but also help to reinforce it. Trudgill 5)고 진술하였다.

5) 볼로쉬노프(1895~1936)는 바흐친(M. M. Baxtin; 1895~1975) 학파의 일원이다. 소련 언어학자 이바노프(V. V. Ivanov)가 1973년에 볼로쉬노프의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이 바흐친의 저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사자 바흐친은 침묵을 유지하였고 원저자를 확인하려는 당국의 서명 요청도 거부하였다. Vološinov, V. N.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1973). “Translator's Preface, 1986.” ix.

## II. 언어, 계급, 이데올로기

### 1. 볼로쉬노프의 언어철학

볼로쉬노프는 언어의 재현과 상징이 계급과 사회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문제의 고찰을 위해 언어의 표기와 표의보다는 발화의 현상에 더 주목한 선구적인 언어학자였다. 그는 1920년대 후반에 역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에서 대화(dialogue)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화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개인들 사이의 직접적인, 맞대면의, 음성화된 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ialogue can be understood in a broader sense, meaning not only direct, face-to-face, vocalized verbal communication between persons, but also verbal communication of any type whatsoever. (95)

볼로쉬노프가 정의하는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방백, 독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우선 희곡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독백의 구절이나 발화들과 흡사한 “내면의 대화”(inner dialogue), 즉 “내면의 말하기”(inner speech)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38), 실로 모든 형태의 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타자와의 대화이든 내면의 말하기이든 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은 화자와 청자를 전제하는 사회적 작용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볼로쉬노프에 따르면 “말은 발군의 이데올로기적인 현상”(The word is the ideological phenomenon par excellence, 13)이고,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의미를 지니는 . . . 기호”(Everything ideological possesses meaning, . . . a sign, 9)이다. 즉, 말은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기호이다. 그런데 기호는 단순히 현실의 일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을 반영하고 굴절시키며”(reflects and refracts

another reality, 10), 기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감지된 기호와 이미 알려진 다른 기호들 간의 참조의 행위”(an act of reference between the sign apprehended and other, already known signs, 11)이다. 기호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므로 기호를 매개로 한 이해하기의 연쇄는 “이데올로기적인 창조성의 연쇄”(chains of ideological creativity)이며 개인의 의식 속으로 뺏어나가 그 의식들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기도 하다(11). 기호 중에서도 말(word)은 “사회적 교감의 가장 순수하고 세심한 매개체”(the purest and most sensitive medium of social intercourse, 14)이며,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행위에 수반되어 그 행위를 해석하고”(accompanies and comments on every ideological act, 15), 그 과정에서 “말의 이데올로기적인 굴절”(ideological refraction in word)은 필연적이다(15). 개인의 의식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말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기호의 매개에 의해 존재하므로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데올로기적인 사실”(social-ideological fact, 12)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실재는 경제적 토대 위의 당면한 상부구조이며”(Ideological reality is the immediate superstructure above the economic basis, 13), 개인의 의식은 이데올로기적인 상부구조의 건축가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기호들의 사회적 건축물에 기거하는 세입자일 뿐”(only a tenant lodging in the social edifice of ideological signs, 13)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로쉬노프의 언어이론은 마르크스의 토대-상부구조 이론을 수용하였으며, 알튀세르(Althusser)의 이데올로기-주체-호명(interpellation) 이론을 예고했다고도 볼 수 있다.

볼로쉬노프는 “랑그”(langue [langue])를 언어연구의 주축으로 삼아 언어적 기능의 모든 발현들의 총체, 즉 “랑가쥐”(speech [langage])를 규명해야 한다는 소쉬르<sup>6)</sup>의 주장에 반대한다(59-60). 볼로쉬노프는 소쉬르가 랑그를 사회적 규범으

6) 소쉬르는 자신의 언어연구를 위해 전체적인 언어행위로서의 “랑가쥐”(human speech [langage])와 개인적인 말하기[발화]인 “빠롤”(speaking [parole])과 이 빠롤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관행이자 약속으로서의 언어체계인 “랑그”(langue [langue])를 구별하였다(Saussure 9, 13).

로 규정하여 중시하는 반면에 “빠롤”(utterance [parole])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말하기 행위”(individual act of speaking)로만 치부하여 중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61). 그러나 소쉬르가 랑그는 “발화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through their active use of speaking [parole])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채워지는 창고이며 (Saussure 13), 랑그의 연속성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내포하고”(necessarily implies change)(Saussure 78), “언어(랑그)는 발화(파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김성도 역 269)고 말했다는 점에서, 그가 랑그의 불변성만을 주장하고 빠롤의 역할을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쉬르는 다만 “생각을 표현하는 기호들의 체계”(a system of signs that express ideas, 16)인 랑그가 사회적이며 본질적이고 그에 비해 빠롤은 개인적이며 부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14), 바로 이 같은 이분법이 볼로쉬노프의 비판과 일부 오해를 초래한 것이다. 소쉬르는 빠롤과 랑그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며 빠롤이 랑그의 진화를 견인한다고 말했음에도 (19), 한편으로 “랑그의 언어학만을 다루겠다”(I shall deal only with linguistics of language, 20)고 선언할 정도로 랑그에 비해 빠롤의 문맥에 담긴 사회적,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역량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볼로쉬노프는 소쉬르가 발화를 철저하게 개인적인 실체로 간주한다고 비판하면서 “발화[빠롤]가 . . . 언어의 역사에서는 본질적인 인자”(the utterance [parole] . . . an essential factor in the history of language, 61)이고 “역사는 개성과 임의성을 지닌 ‘발화’에 의해 지배된다”(History is dominated by “utterance” with its individuality and randomness, 61)고 주장함으로써 소쉬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다.

볼로쉬노프는 말을 주고받는 과정을 언어체계[랑그]에 대한 이해로 보지 않고 발화[빠롤]의 문맥에 담긴 신선한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간주한다.

기본적으로 (말을) 이해하는 일은 사용된 (언어)형식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특정한 구체적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즉 특정한 발화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그 형식의 참신함을 이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그것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the task of understanding does not basically amount to recognizing the form used, but rather to understanding it in a particular, concrete context, to understanding its meaning in a particular utterance, i.e., it amounts to understanding its novelty and not to recognizing its identity. (68)

이러한 언어관은 후기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이 『철학적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s*)에서 “언어에 있어서 한 단어의 의미는 그것의 용법”(황경식 역 100 재인용)이라고 말하고 “단어와 표현들은 사회적 맥락이나 ‘삶의 흐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116)고 생각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블로쉬노프는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의 언어의식은 “규범적으로 동일한 언어형식들의 추상적 체계와는 관계없다”(not at all concerned with the abstract system of normatively identical forms of language, 70)고 진술한다. 그는 실제적인 발화에 담긴 언어형식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언어형식은 . . . 화자에게 있어 구체적인 발화의 문맥에서만 존재하므로, 그 결과 특정한 이데올로기적인 문맥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말을 결코 말하거나 듣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좋은지 나쁜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유쾌한지 불쾌한지 등을 말하고 들을 뿐이다. 말은 항상 행위나 이데올로기로부터 도출된 내용과 의미로 채워져 있다.

the linguistic form, which . . . exists for the speaker only in the context of specific utterances, exists, consequently, only in a specific ideological context. In actuality, we never say or hear *words*, we say and hear what is true or false, good or bad, important or unimportant, pleasant or unpleasant, and so on. *Words are always filled with content and meaning drawn from behavior or ideology.* (70 원문 강조)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발화 속에서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문맥에 의해 결정되고”(The meaning of a word is determined entirely by its context) 그 말이 사용

되는 문맥들만큼이나 다양하다(Vološinov 79). 이러한 문맥들은 “끊임없는 긴장이나 쉴 새 없는 상호작용 및 갈등의 상태에”(in a state of constant tension, or incessant interaction and conflict, 80) 있음에도, 볼로쉬노프가 보기에 기존의 언어학에서는 그 속에 담긴 “말의 가치평가적인 억양의 변화”(change of a word’s evaluative accent, 80)에 주목하지 않았다.

볼로쉬노프는 “어떤 말을 살아있는 실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말의 다중억양”(a word’s multiaccentuality that makes it a living thing)이고 다중억양은 “의미의 다중성”(multiplicity of meaning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81). 결국 기호는 “사회적 다중억양”(social multi-accentuality)이 교차하는 “계급투쟁의 장”(arena of class struggle)이기에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 기호들을 창출하여 영속적인 “단일억양”(uniaccentual)을 고정하려고 분투한다(23). 그러나 사회적 위기나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되면 억압되었던 억양들이 표출되어 “살아있는 이데올로기 기호”의 “야누스 같은” 면모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23). 볼로쉬노프는 “언어행위[랑가쥬]의 실재”(reality of language speech)는 언어형식들의 추상적 체계도, 고립된 독백적 발화도 아닌 다양한 발화속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사건”(the social event of verbal interaction)이라고 정리한다(94). 따라서 볼로쉬노프의 발화는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개인의 심리가 아닌 사회적 원리의 산물이고 “발화의 구조는 순수하게 사회적인 구조이다”(The structure of the utterance is a purely sociological structure. 98). 요컨대 볼로쉬노프가 언어연구의 중심으로 상정한 발화는 다양한 문맥, 다양한 억양, 다양한 의미들이 뒤섞여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들을 표출하는 언어의 지속적인 생성과정인 셈이다.

## 2. 『피그말리온』에 대한 볼로쉬노프적인 고찰

소쉬르는 기호(sign)를 소리이미지(sound-images)와 개념(concept)의 심리적 결합 체계로 보면서 기호들의 체계(system of signs)인 랑그를 언어연구의 핵심으

로 간주하였고(14-15), 반면에 블로쉬노프는 그러한 기호들이 발성기관을 통해 음성화되는 발화의 과정에 더 주목하였다. 기호의 결합 인자 중 그 개념이 기의(signified, signifié)이고 소리이미지가 기표(signifier, signifiant)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자의적”(The bond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is arbitrary. Saussure 67)이라는 소쉬르 기호론의 특징에 주목하여 『피그말리온』의 대사들에 담긴 다양한 기호들을 의미의 가변성과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바 있다<sup>7)</sup>. 그러나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 동일한 기표에 상이한 기의들의 결합, 하나의 기표에 여러 기의들의 동시적인 중첩 등은 심리적인 랑그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소쉬르보다는 실제적인 발화의 역동성을 중시하는 블로쉬노프의 관점을 수용할 때 그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어 화자의 숨은 의도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블로쉬노프는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발화는 부단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그 속에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함의와 역량이 혼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피그말리온』의 무대에서 프레디(Freddy)를 그냥 “Freddy”(9)로 부르는 것과 “Mr Eynsford Hill”(57)로 호칭하는 것은, 나아가 “Frederik Eynsford Hill, Esquire”(118)로 경칭하는 것은 분명 그 함의가 다르다. 존칭과 경칭을 주고받는 화자와 청자는 사회적 신분을 의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특혜를 누리거나 혹은 주장하고 싶은 이데올로기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다. 중상류층 출신의 음성학자 히긴스는 일라이자를 처음 대할 때 “이 짓이긴 우거지상”(you squashed cabbage leaf, 18), “이 철면피년”(this baggage, 26), “이 칠칠치 못한 부랑아촌뜨기”(this draggletailed guttersnipe, 29)라고 부른다. 히긴스가 일라이자를 지칭하기 위해 일상적인 기표에 일반적이지 않은 기의를 담아 발화했던 데에는 코크니의 어법과 발음으로 천박한(?) 말을 하는 하층민은 사회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계급적, 신분적, 지적 우월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라이자는 피커링 대령(Colonel Pickering)이 처음 말을 건넬 때 “둘리틀 양”(Miss Doolittle, 34)으

7) 『피그말리온』: 사회언어학적 고찰. 『영어영문학연구』 61.4 (2019.12)

로 호칭해주자 비로소 자신이 숙녀처럼 존중받는다느 느낌에 크게 감동한다. 이후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피커링이 무심결에 딱 한 번 “Eliza”(50)로 호칭했을 때 자신을 계속 ‘Miss Doolittle’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후에 고백하기를 이 존칭으로 처음 불렸을 때 자신에 대한 “진정한 교육”(real education, 94)과 “자기 존중”(self-respect, 95)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피커링이 순전히 일라이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만 ‘Miss Doolittle’로 존칭했을까? 중상류층의 관습상 피커링의 몸에 밴 언행에서 나온 ‘Miss Doolittle’이라는 기호에는 일라이자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자 하는 숨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일라이자를 두고 히긴스와의 내기가 진행되는 중에는 사회적 하층민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적당히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분적, 계급적 이데올로기가 ‘Miss Doolittle’이라는 기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일라이자가 대사관 파티에서 성공하고 돌아온 후 피커링이 보인 의외의 무심한 태도는 그동안 일라이자에 대한 피커링의 속마음이 존중 일변도만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일라이자는 노골적으로 막 대하는 듯한 히긴스에게는 거세게 저항할 수 있었지만, 신사다운 품위와 거리감을 유지하는 피커링에게는 불만은커녕 오히려 존경심을 느끼기까지 한다. 동일한 기표에 상이한 기의가, 또한 하나의 기의에 적대적인 함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발화의 문맥과 억양이 단일하지 않으며 그 속에 이데올로기적인 의도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표에 여러 기의들이 중첩되어 기호의 중의성을 예시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제1막에서 일라이자는 한 신사[Pickering]에게 구걸하듯이 꽃을 팔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에 깜짝 놀라서 “난 행실 바른 소녀예요”(I’m a respectable girl, 13)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꽃을 팔지 못하게 되자 풀이 죽어서 혼잣말로 “난 착한 소녀예요, 진짜예요”(I’m a good girl, I am, 15)를 발화한다. 제2막에서 히긴스가 가정부 겸 집사인 피어스 부인(Mrs Pearce)에게 일라이자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주문하라고 지시하자 일라이자는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은 신사가 아녜요. 절대 아녜요. 난 정말 착한 소녀라구요. 난 당신 같은 나부랭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잘 안다구요”

라고 비난조로 항의한다(29-30). 또한 히긴스가 피어스 부인에게 지시하여 강제로 목욕시키려 할 때도 “난 경찰한테 걸릴 짓을 한 적 없어요. 없다가요. 난 착한 소녀예요.”(. . . I'm a good girl-)라고 내치르며 ‘good girl’을 반복한다(35). 이상의 문맥과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일라이자의 ‘I'm a good girl’은 자신이 호객행위를 하는 거리의 여자가 아닌 ‘정숙한 여자’임을 내비치려는 소극적 저항의 발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어스 부인이 부모에게 돌아가라고 말할 때도 일라이자는 “난 부모 없이도 잘 해왔어요. 글구 난 착한 소녀라구요.”(I done without them. And I'm a good girl, I am, 31)라고 답변한다. 또한 자신을 붙잡아두려고 회유하는 히긴스에게는 “난 금도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어요. 난 착한 소녀라구요.”(I don't want no gold and no diamonds. I'm a good girl, I am, 33)라고 대꾸한다. 이렇듯 일라이자의 뜻 부러지는 대답에서 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려는 ‘자주적인 여성’의 태도가 엿보인다. 일라이자의 기표 ‘good girl’에는 ‘착한 소녀’라는 표면적인 기의 이외에 ‘정숙한 여자’와 ‘자주적인 여성’이라는 저항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의가 대화의 상황에 따라 기표 ‘good girl’에 제각기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무대 위에서 발화하는 배우의 역량에 따라, 혹은 관객의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섬세한 의미가 다소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블로쉬노프에 따르면 기호라는 매개체(medium)는 “사회적으로 조직된”(organised socially) 집단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12), 개인의 의식은 “사회적-이데올로기적인”(social-ideological) 기호의 매개에 의해 존재하며(12), 기호는 단지 현실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을 반영하고 굴절시킨다”(reflects and refracts another reality, 10). 살펴보았듯이 일라이자가 발화하는 ‘good girl’에는 열등한 사회적 위치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저항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기호를 매개로 한 저항의식의 표출은 일라이자의 아버지 앨프리드 돌리틀(Alfred Doolittle)에게서도 발견된다. 돌리틀은 딸 일라이자가 히긴스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는 조건으로 5파운드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기호 “undeserving”(45)

으로 규정한다. 유사은유의 능력이 뛰어난 둘리틀에게 있어서 ‘undeserving’은 우선 “deserving”(46)의 반대 개념으로서 ‘복시수혜 자격이 없는’의 기의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의 기의 이외에 “중산층적인 도덕을 거부하는”(up agen[against] middle class morality, 45) 자유로운 존재라는 저항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둘리틀은 ‘undeserving’이라는 기표에 세 가지 기의를 중첩적으로 혼용하여 자신이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데 굳이 사회적 규범에 얽매어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함으로써 하층민으로서 자기 입장을 합리화한다. 하층민들의 계급의식이 성장하고 사회적 평등의식이 확산되었던 20세기 초의 역사에서 일라이자의 ‘good girl’, 둘리틀의 ‘undeserving’은 그들의 자의식과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기호들인 동시에 이미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의식이 발화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기호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계급적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는 둘리틀이 히긴스와 피커링에게 매번 말할 때마다 “Governor”(나리)라고 극존칭을 붙이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지양하려는 전술처럼 보인다. 반면 히긴스는 상류층 영어와 하류층 영어를 구분하고 사회적 차별의 준거로 삼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채워져 있다. 일라이자의 “밀바닥 영어”(kerbstone English, 18)가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언어”(language of Shakespeare and Milton, 18)를 모욕(?)했다는 구실로 그녀를 멸시해도 된다는 의식 속에는 상류층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하층민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코크니 발음으로 발화되는 일라이자의 ‘good girl’과 둘리틀의 ‘undeserving’에는 중상류층이 발화하는 동일한 기표의 일반적인 혹은 지배적인 의미 이외에 두 사람의 저항적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그런데 트러트길은 계급에 따라 구별되는 음운적 변수들이 “상이한 사회적 문맥들”(in different social contexts)에서 또 변종을 일으킨다고 말한다(133). 한편 버슈렌(Jef Verschueren)은 “공공의 영역은 절대 끝나지 않는 의미에 관한 투쟁의 장이며”(The public sphere is an arena with never-ending struggles over meaning. xi), “이데올로기 투쟁은 (나아가 가장

사회적인 투쟁은) 의미를 중심으로 벌어진다”(ideological struggle [and, by extension, most social struggle] centers around meaning, 2)고 말한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볼로쉬노프는 말의 의미는 발화의 구체적 문맥에 따라 달라지며 발화 속의 기호는 사회적 다중역양이 교차하는 계급투쟁의 장이라고 정리하며 종합한다. 요컨대 계층과 상황에 따라 문맥, 발음, 역양이 교차하거나 달라지면서 동일한 기표에 상이한 기의들이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고 거기에는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피그말리온』의 대사 속에서 기호 ‘lady’ 또한 다중적인 기의를 지니고 있다. ‘점잖고 품위 있는 부인’과 ‘상류층 귀부인’이라는 기존의 의미 이외에 일라이자의 발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 히긴스에게 발음교육을 받고자 그를 찾아간 일라이자가 “난 꽃가게의 숙녀가 되고 싶어요”(I want to be a lady in a flower shop, 26)라고 말했을 때의 ‘lady’는 코크니 발음으로 [laidi]에 가까울 것이고 그 함의는 ‘경제활동의 능력을 갖춘 세련된 여성’이다. 반면 일라이자가 상류층 화법에 숙달한 후 히긴스가 그녀에게 생계의 방편으로 누군가와 결혼을 제안하자 “난 꽃을 팔았지, 날 팔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이 날 숙녀로 만들었으니 뭔가 팔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됐어요”(I sold flowers. I didn't sell myself. Now you've made a lady of me I'm not fit to sell anything else. 78)라고 반박할 때의 ‘lady’는 표준발음 [leidi]로 발화될 것이며, 거기에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고상한 중상류층 숙녀’의 의미와 ‘자주적인 여성’의 함의가 혼재되어 깃들어 있다.

이처럼 동일한 기호가 발화의 역양에 의해 기의의 다변화를 수반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비 내리는 세인트 폴 교회(St Paul's church) 앞에서 프레디와 부딕친 일라이자가 “spawl a pore gel's flahrzn”(11, 불쌍한 기집애 꼬슬 맹개뜨리고)라고 발화할 때 기표 ‘girl’은 “gel”[gel]로 소리나면서 ‘(불쌍한) 소녀’를 의도한다. 반면 항상 중상류층 발음을 의식하며 발화하는 피어스 부인이 일라이자를 지칭할 때의 ‘girl’은 표준발음 [gɜ : (r)]로 소리나지만 하대하는 역양이 담겨 ‘(어린) 기집애’의 기의에 가깝다. 하나의 기호가 화자의 처지 혹은 “상이한 문맥에

따라 가치평가적인 억양'(evaluative accent in different contexts, Vološinov 80)이 바뀌면서 이데올로기적인 함의까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프레디가 히긴스 부인 댁에서 인사조로 'How do you do?' 대신 "Ahdedo?"(57)라고 발화함으로써 기표와 기의가 둘 다 변모한 현상에도 가치평가적인 억양과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담겨 있다.

잉글랜드 사회를 인류학적 시각에서 연구한 케이트 폭스(Kate Fox)는 잉글랜드 사회의 하류층과 상류층을 언어적 특징에 따라 구별하면서 'half past ten'을 종종 하류층 사람들은 "ah pass ten"으로, 상류층 사람들은 "hpstn"으로 발음하고, 'handkerchief'을 하류층은 "ankercheef"으로, 상류층은 "hnrchf"으로 발음한다고 지적한다(102). 하류층 사람들은 주로 자음을, 특히 두음 [h]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두드러지며, 상류층은 입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자 과도하게 모음을 탈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상류층은 "plastic" 같은 낱말에서는 오히려 모음 [a]를 기식음 [h]를 붙여 [aah]로 길게 늘어 발음한다고도 한다(Fox 102). 폭스는 하류층의 화법이 저학력 화자의 말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상류층의 화법이 고학력자의 화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도 진술한다(103). 예의 "Ahdedo?"는 경제적 하류층이자 저학력자인 프레디가 상류층의 언어적 습관을 흉내 내려다가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쉬르는 기표를 문자이미지가 아닌 청각적 인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프레디의 "Ahdedo?"는 'How do you do?'와는 분명 기표도 기의도 일치하지 않는 또 하나의 기호로 보아야 한다. (업태용 53-54)

'처음 뵙겠습니다' 혹은 '안녕하십니까?'의 기의를 담은 'How do you do?'가 프레디의 입을 통해 'Ahdedo?'로 변모하면서 '나는 (초라하지만) 귀족출신이야'라는 함의를 표출한다. 대화의 상대방과 주변인들이 프레디의 억양에서 그 함의를 눈치챘다면 'Ahdedo?'는 어설플 기의를 추가한 셈이다. 프레디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문화적으로는 귀족적인 관행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제대로 된 중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111) 사회적 풋내기이다. 속어에 가까운 "오케바리! 따봉"(Righto! Ripping, 83)도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프레디가 불안정한 기호 ‘Ahdedo?’로 인사한 것은 열등한 경제적, 지적 수준에서 상류층의 어투를 짐짓 꾸미려다가 나온 의도적인 발화이며, 그 속에는 몰락한 귀족의 후손이라는 서글픈 정체성과 함의가 숨어 있다.

『피그말리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발화가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며 의미 투쟁의 장임을 가장 단적으로 예시하는 기호는 ‘marry’일 것이다. 제2막에서 갑자기 히긴스의 집을 찾아온 일라이자의 정체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벌어진다.

피어스 부인: 왜 안 돼냐고요! 선생님은 저 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  
아요. 저 애의 부모는 어떻고요? 저 애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라이자: 헐!

히긴스: 보세요! 이 계집애 말이 아주 제격이네요, 헐! 과연 결혼을! 저 계  
층의 여자는 결혼한 지 1년이면 지쳐빠져 쉰 살 먹은 막일꾼처럼  
보인다는 걸 모르나요?

라이자: 누가 나랑 결혼한다구?

MRS. PEARCE. Why not! Bu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her.  
What about her parents? She may be married.

LIZA. Garn!

HIGGINS. There! As the girl very properly says, Garn! Married  
indeed! Dont you know that a woman of that class looks a  
worn out drudge of fifty a year after she's married.

LIZA. Whood marry me? (30-31)

피어스 부인과 히긴스는 “married”를 표준발음 [mærid]로 발화하고 코크니를 구사하는 일라이자는 “marry”를 [me(ɪ)ri]에 가깝게 발음할 것이다. 히긴스는 빈민층 여자들이 결혼하면 힘든 노동과 고생 때문에 금방 팍삭 늙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일라이자가 아직 미혼이라는 심증을 피력할 수 있었다. 후에 대사관 파티에서 성공한 일라이자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을 표출하자 히긴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좋은 신랑감을 구해줄 수 있다고 결혼을 권유한다. 이때 히긴스가 언급한

기호 “marry”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중상류층 부인들의 물질적으로 안락한 결혼생활을 암시한다. 하지만 일라이자는 “난 꽃을 팔았지, 날 팔지 않았어요”(I sold flowers. I didn't sell myself, 78)라는 대답으로 단호하게 거부한다. 결혼에 대한 일라이자의 주체적인 태도는 일찍이 『워런 부인의 직업』(*Mrs Warren's Profession*)에서 비비(Vivie)를 통해 강렬하게 표출되었던 쇼의 지론이기도 하다. 요컨대 음성학자로서 다양한 계층의 발화에 익숙한 히긴스는 ‘marry’의 의미를 계급에 따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는 둔감하고, 반면 일라이자는 자신이 하층계급이고 여자이지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체적인 결혼관을 지니고 있다.

기호 ‘marry’를 둘러싼 발화 속에서의 의미의 대립은 피커링 대령과 돌리틀과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딸을 찾아 히긴스의 집을 방문한 돌리틀은 히긴스가 5파운드만 적선하면 동거녀와 한바탕 실컷 놀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커링이 질문한다.

피커링: 당신은 왜 동거녀와 결혼하지 않는 거요? 난 그런 부도덕한 짓을 부추기는 일엔 딱 선을 긋고 싶소만.

돌리틀: 나리, 그 여편네한테 그리 말해주세요. 꼭 말해주세요. 전 정말 하고 싶어요. 그 때문에 시달리는 건 접니다. 그 여편네를 꼭 잡지 못했거든요. 그치한텐 사근사근 굴어야죠. 선물도 줘야 하죠. 죄진 것 같다 싶으면 옷도 사줘야 하고요. 나리, 그 여자한테 전 노예예요. 단지 그 여자의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치도 그걸 압니다. 그 여잘 잡아서 저랑 결혼시켜주세요!

PICKERING. Why dont you marry that missus of yours? I rather draw the line at encouraging that sort of immorality.

DOOLITTLE. Tell her so, Governor: tell her so. I'm willing. It's me that suffers by it. Ive no hold on her. I got to be agreeable to her. I got to give her presents. I got to buy her clothes something sinful. I'm a slave to that woman, Governor, just because I'm not her lawful husband. And she knows it too. Catch her marrying me! (47)

중상류층인 피커링은 남자가 여자와 동거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기에 무덤덤하게 발화하는 그의 기표 “marry”[mæri]는 전통적인 관습과 제도에 의한 남녀의 사회적 결합이라는 기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코크니 억양으로 “marrying”[mɛ(ɪ)rin]을 발화하는 둘리틀은 결혼 전에는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야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을 암시하면서 자신보다는 동거녀가 결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얼핏 보면 둘리틀은 동거생활로 인한 자신의 고달픔을 술회한 듯이 보이는데 결코 결별할 생각은 없다는 점에서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자유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후에 천운의 덕에 갑자기 부자가 된 둘리틀이 새신랑의 복장으로 방문하자 피커링은 동거녀가 결혼으로 생각을 돌린 이유를 묻는다. 부유해진 둘리틀은 이에 대답하면서 “중산층의 도덕”(Middle class morality, 96)과 “체면”(respectability, 97)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으나, 남녀 간에 결혼은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며 “중산층적인 방식일 뿐”(only the middle class way, 97)이라고 피커링을 반박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체면상 하는 중산층적인 결혼은 자유로운 “활기를 모두 깨부수는”(broke all the spirit, 97) 것이기 때문이다. 유족한 언어학자 피커링은 기표 ‘marry’에 담긴 남녀 간의 도덕, 의무, 안정, 제도라는 보수적 함의를 부여하지만 코크니 억양으로 발화하는 둘리틀은 동일한 기표에 자유, 선택, 구속, 억압의 저항적인 함의를 투사한다. 블로쉬노프는 “체계적인 문법적 사고”(systematic, grammatical thought)는 살아있는 언어에 대해 불가피하게 “보수적 입장”(conservative position)을 취하지만(78), 말의 문맥은 “끊임없는 긴장이나 쉴 새 없는 상호작용 및 갈등의 상태에”(in a state of constant tension, or incessant interaction and conflict, 80) 있고, 이처럼 사회적 다중억양이 교차하는 기호는 “계급투쟁의 장”(arena of class struggle)이라고 정리한다(23). 이에 따르면 피커링과 둘리틀은, 또한 히긴스와 일라이자는 기호 ‘marry’를 두고 자신들의 사회적 문맥 속에서 계급투쟁을 벌이는 셈이다.

그런데 이제 막 경제적 처지만 중상층에 진입한 둘리틀이 발화와 의식은 여전히 하층계급에 머물러 있음에도 중산층의 방식에 따라 결혼식을 치르려 한다.

그렇다면 기호 ‘marry’는 피커링과 둘리틀로 대변되는 계급적 함의의 각축장인 동시에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불일치 상태에 놓인 둘리틀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볼로쉬노프는 “기호에 반영되는 존재는 단순히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굴절되고”(Existence reflected in sign is not merely reflected but refracted. 23), “생성과정 중에 있는 존재의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굴절은 . . . 말의 형태로 이데올로기적인 굴절을 수반한다”(Every ideological refraction of existence in process of generation . . . is accompanied by ideological refraction in word, 15)고 말한다. 벼락부자 둘리틀이 자신의 발화를 “올바른 영어”(proper English, 89)라고 말하면서도 히긴스에게 “중산층의 언어”(middle class language, 89)를 배우겠다고 요청하는 장면에서 둘리틀의 존재의 이데올로기적인 굴절을 예상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앵벌이처럼 꽃을 팔던 일라이자가 대사관 파티에서 상류층 언어의 구사에 성공한 이후 그녀의 기호 ‘lady’는 이데올로기적인 굴절을 겪으며 억양과 기의가 변모하였고, 이렇게 굴절된 기호가 다시 발화로 표출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일라이자의 사회적 존재, 즉 자아도 굴절되고 변모하게 된다. 존재의 이데올로기적인 굴절은 지향점이 상이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이 교차하는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다(Vološinov 23). 극의 후일담을 보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라이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프레디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피커링과 히긴스의 도움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꽃가게를 열어 생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이제 다시 그녀의 기표 ‘lady’는 상류층 귀부인도 숙녀도 아닌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주체적인 여성의 기의를 회복한다. 그런데 그 기호의 대상은 과거에 소원하던 꽃가게의 점원이 아닌 당당하게 꽃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장으로 승진한다. 볼로쉬노프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인 변화는 토대에서의 변화가 상부구조에서 완료되는 “사회의 변증법적인 생성과정”(dialectical generation of society)이고(18), 이데올로기적인 기호의 굴절은 “기호 내부의 변증법적인 특질”(inner dialectical quality of the sign)에 따라 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확연히 부각된다(23). 일라이자의 ‘lady’도 이러한 변증법적인 굴절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 3.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과 인간의 고유성

노동계급의 성장으로 다양한 기호들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활발하던 『피그말리온』의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인물들의 언어와 의식이 굴절된 기호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히긴스를 제외한 중상류층 인물들은 일라이자의 “Not bloody likely”(62)와 클라라(Clara)의 “Such bloody nonsense”(63)에서 들리는 기호 ‘bloody’(쫓잡은, 졸라)에 대해 그 상스러움이 심대해서 수용하기 힘들어하지만, 억양이 조금 순화되어 유사은유적으로 대체된 ‘blooming’(14, 19, 44, 88. 옛같은, 열라)은 대체로 묵인하며 대화한다. 중상류층인 히긴스는 메타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화법교육자임에도 조금이라도 흥분할 때면 기호 “damn”(38, 57, 102)과 “damned”(48, 59, 63, 75, 80, 95, 104)를 습관적으로 발화한다. 하층민들의 상스러운 제약적 약호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중상류층의 랑그에 침투했다는 것은 노동계급의 성장에 의한 사회적 존재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굴절을 방증한다. 경제적으로 중상층에 막 진입한 돌리틀의 내면에서 기호 ‘marry’가 굴절의 과정을 거치고 하층민적인 기의와 중상층적인 기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노동계급 시절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또한 “하층에서 중상층으로 막 신분 상승을 이룬 돌리틀의 대시들은 약해져가는 신분제도의 상황을 시사하는”(김현아 41) 것이다. 돌이켜보면 돌리틀이 자신의 코크니를 ‘올바른 영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일라이자의 기호 ‘lady’가 꽃가게 점원에서 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정체성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사회적 도전 덕분이다. 돌리틀과 일라이자의 사회적 자신감은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인 계급투쟁인 동시에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상부구조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관하여』(*On the Reproduction of Capitalism*)에서 계급투쟁은 처음부터 경제적 계급투쟁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ideological class struggle)이고(45),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relatively autonomous)이라고 진술한다(54). 로또 같은 횡재 덕분에 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돌리틀이 기호 ‘marry’와 관

련하여 과거의 정체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또한 경제적 자본이 없는 일라이자가 중상류층과의 결혼 제안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상부구조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흥분할 때면 튀어나오는 히긴스의 서슴없는 욕설도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시사한다.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언어를 추앙하는 중상류층 히긴스의 간헐적인 막말과 욕설은 이데올로기 기호의 계급투쟁의 장에서 하층계급들의 기표, 기의, 억양, 함의들이 중상류층의 기호체계에 침투한 사회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볼로쉬노프의 입장에서 보자면 발화 속의 기호를 둘러싼 의미의 계급투쟁이 기호의 굴절을 낳고, 이것의 축적이 화자와 청자의 존재의 이데올로기적인 굴절로 이어지고,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다시 굴절된 기호로 발화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의 결과이다.

한편 말은 체외적 물질에 의존할 필요 없이 “개별 유기체가 지닌 자체의 수단에 의해 생산된다”(produced by the individual organism's own means, Vološinov 14)는 점에서 발화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개인의 생리적 특성이 개입된다. 볼로쉬노프에게 있어 개별적인 생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언어의 발화에서 중요 요인이 아니지만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볼로쉬노프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말의 기호로 구현되고 말의 “표현이 경험을 조직화”(expression organizes experience)하는데(85), 이러한 경험은 “‘나의 경험’과 ‘우리들의 경험’이라는 두 극단”(two extremes the “I-experience” and the “we-experience,” 87) 사이에 존재한다. ‘나의 경험’은 그 극단적 한계에 가까이 근접할수록 “동물의 생리적인 반응으로 되돌아가면서”(reverting to the physiological reaction of the animal) 이데올로기적 구조화와 언어적 묘사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 감지 가능한 자질도 상실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멸을 지향한다(Vološinov 88). 즉, ‘나의 경험’은 일순간 감지하기는 하지만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고 곧바로 소멸하는 동물적 반응 혹은 생리적인 느낌에 가깝다. 반면 ‘우리들의 경험’은 집단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지향이 확고할수록 “이데올로기적인 분화와 의식의 성숙”(ideological differentiation, the growth of consciousness)이 확대되어 내면의 세계가 더욱 생생하고 복잡해지는 경험이다(88). 대부분의 경험은 이 양극단 사이

에 위치하는데 ‘나의 경험’에 더 가까운가, ‘우리들의 경험’에 더 가까운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새로이 습득한 중상류층 언어를 완전한 자신의 언어라고 착각한 일라이자가 ‘나의 경험’에 아주 가까운 소리로 실어증적인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 일라이자는 대사관 파티에서 돌아온 직후 히긴스의 태도에 실망하고는 도도한 숙녀처럼 당당히 맞서며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다. 그녀는 어린애가 모어(mother tongue)를 습득하듯이 자신이 상류층 언어를 체득했다고 확신하며 “난 당신의 나라에서 어린애와 같아요 내 고유의 언어를 잊어버렸고, 이제 오직 당신의 언어만 말할 수 있어요”(96)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 둘리틀의 느닷없는 등장에 그만 평정심을 잃고 거리의 소녀 시절의 괴성 “A-a-a-a-ah-ow-oo!”(96)를 다시 내지르고 만다. 일라이자는 화나고 충격적일 때나 기쁘고 감동적일 때나 감정이 조금이라도 북받쳐 오르면 명료한 언어적 기호로 발화하는 대신 고양이나 아기처럼 음소를 구별할 수 없는 ‘Ah-ah-ow-oo!’(18, 19, 29, 34)의 괴성을 순간의 감정 상태에 따라 고저장단을 달리하며 되풀이하던 습관이 있었다. 일라이자의 ‘Ah-ah-ow-oo!’는 순간의 강렬한 느낌을 발성기관을 통해 부지불식중에 표출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이 괴성은 즉각적인 신체적 표출이며 동물적인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블로쉬노프가 말한 ‘나의 경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은 말소리의 억양에 의해 화자의 감정 상태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수신하고 그에 따라 발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발화의 현장과 문맥을 떠나서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랑그의 통사적 규칙을 무시한 이 괴성은 야콥슨이 말한 “문맥화 결함 실어증”(contexture-deficient aphasia) 혹은 “인접성 장애”(contiguity disorder)의 격심한 증상이며(Jakobson 106), 적어도 가족공동체 내에서만 혹은 엄마와 아기처럼 밀접한 인간관계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제약적 약호인 것이다. 또한 이 괴성은 의식의 사회적 조직화에 따른 이데올로기적인 분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아직 주체(subject)로 호명되지(interpellated) 않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Oedipus complex) 경험기 이전의 개인의 원초적인 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한참 지난 나이에 외국어를 학습하듯이 수용한 상류층 언어를 원활하게 구사한다고 해서 오이디푸스기 이전에 고착화되어 줄곧 지속되어온 언어적 습관을 단시간에 떨쳐낼 수는 없다. 볼로쉬노프에 따르면 말이라는 기호는 구체적인 문맥 및 특정한 발화의 와중에 발신자의 신호와 수신자의 인식이 변증법적으로 소거되면서 그 의미의 이해에 다다른 역동적인 것인데(68-69), 일반적인 외국어 습득은 “고정적이고 자기동일적인 신호”(fixed, self-identical signal)로서의 언어형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언어는 언어가 되기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68-69).

상류층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일라이자가 고착화된 생리적 반응의 표현 ‘Ah - ah - ow - oo!’에서 탈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언어의 발화에는 사회적 메커니즘 이외에 주관적인 고유성 또한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그말리온』을 부르디외(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와 네 가지 자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개념을 빌어 분석한 황훈성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의 습득이 새로운 아비투스의 형성으로 이어지나 일라이자의 아비투스는 그 대항자인 자본이 없기에 실체적이지 않은 “상상적인”(imaginary) 것이며(387), 일라이자가 발음훈련으로 얻게 된 숙녀의 아비투스, 즉 새롭게 얻은 문화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매우 빈약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다(391). 비슷한 맥락에서 윤소영 또한 “일라이자의 미완의 정체성은 사회적, 경제적 자본의 미비로 불완전한 상태일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라이자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208)이고, “마치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면서 모국어를 잊게 되듯 일라이자도 예전의 언어를 다 잊은 듯”(208)하다고 진술한다. 일라이자의 새로운 문화적 약호, 새로운 아비투스를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언어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불충분한 진단이 될 수밖에 없다. 아비투스가 무의식적인 기질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일라이자가 상류층의 언어로, 상류층의 이데올로기 기호로 매개되는 새로운 아비투스를 단기간에 체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문화적 자본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모어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아비투스가 기존의 아비투스를 본질적으로 갱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지방사람이 오래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상류층 문화를 향유하며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 사투리 억양이 튀어나오는 경우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언어라는 아비투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언어의 문제에는 자본의 작동과 더불어 언어 자체의 특성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주관적인 인간의 고유성을 고찰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일라이자가 상류층의 이데올로기 기호를 구사하면서도 ‘Ah—ah—ow—oo!’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점, 중늬음이 히긴스와의 로맨스 혹은 결혼을 거부한 점, 부자가 된 돌리틀의 기호 ‘marry’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은 결국 인간의 본능과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고, 나아가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돌리틀이 중상층 방식의 결혼을 선택하면서 기호 ‘marry’의 중상층적인 기의를 선뜻 수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계급 시절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일라이자의 ‘Ah—ah—ow—oo!’는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외적인 충격에 대한 본능적인, 동물적인 감정의 표출로서 ‘나의 경험’에 가까운 생리적 표현이다. 그런데 블로쉬노프는 배고픈 사람의 허기감도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어조화”(intoning)의 방향이 좌우되므로 아주 단순한 감지도 “가치평가적인 사회적 지향”(evaluative social orientation), “정치적 색채”(political coloring), 즉 이데올로기적인 어조를 띠 수 있다고 진술한다(87). 그렇다면 일라이자의 괴성에도 자신의 고유한 음색과 발성 이외에 사회적 호소와 향의의 어조가 담겨 있는 것이다. 정교한 약호의 능력이 없는 혹은 랑그의 통사적 규칙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지 못한 주체가 본능적 감정에 사회적 향의의 어조를 실어 표출하는 소리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적 욕망의 원시적 표현일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원초적 신호인 것이다.

쇼는 『피그말리온』의 후일담에서 일라이자가 결혼상대자로 히긴스를 거부하

고 프레디를 선택한 것을 두고 “일라이자의 본능”(Eliza’s instinct, 108)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노처녀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미모의 젊은 여자인 일라이자는 아직 그러한 압박에서 자유롭기에 본능이 인도하는 대로 선택하기 쉽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쇼는 인간으로서의 본능 혹은 관성이 경제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있고 경제적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욕망의 지향점이 국지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라이자는 히긴스와 언쟁하던 중 히긴스의 무례한 무차별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날 무시하지 마세요”(99)라고 단언하고, 히긴스의 회유를 끝내 뿌리치면서 프레디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이때 쇼는 1916년 초판본에서 “프레디가 날 부양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그 애와 결혼할 거예요”(I will marry Freddy, I will, as soon as he's able to support me, 136)라고 썼던 대사를 1941년 표준판본에서는 “내가 프레디를 부양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그 애와 결혼할 거예요”(I will marry Freddy, I will, as soon as I'm able to support him, 103)로 수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을 전복시키고 일라이자를 주체적인 여성으로 더욱 부각시킨다. 경제적 곤경을 예상하면서도 히긴스의 비서나 상류층 남자의 트로피 와이프(trophy wife)가 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젊은 프레디와 결혼하여 남편의 단점을 보완하며 가정을 이끌겠다는 일라이자의 각오는 삶을 개척해온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주적인 태도이다.

일라이자의 본능과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고유성에 따른 발화와 삶의 선택은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며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친다는 알튀세르의 이론을 연상시킨다. 볼로쉬노프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가 “언어철학의 질문들”(questions of philosophy of language)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천명하고(17), 이데올로기의 모든 영역은 토대에서의 변화에 전체적으로 반응하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a unified whole)이므로(18),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는 영역들 사이의 모든 질적인 차이들”(all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interacting domains)을 유지하면서 모종의 변화가 경유하는 모든 다양한 단계들을 추적해야 하며(18), 경제적 정세의

변화와 사회적 현상 사이에 길게 펼쳐져 있는 질적으로 다른 각각의 영역은 “자체의 특수한 법칙들”(its own specific set of laws)과 고유의 특수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다(18). 각각의 이데올로기 영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블로쉬노프는 토대와 상부구조 관계의 기계적 인과성을 부인하고 “변증법적 생성과정”(dialectical generation, 18)에 의한 상부구조에서의 완결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알튀세르의 상대적 자율성과 유사한 관점을 견지한다. 바로 일라이자의 자주적인 삶의 태도가 그것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 III.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소쉬르 류의 구조주의언어학 이론으로는 제한적으로 보이거나 간과될 수 있었던 『피그말리온』의 대사 속 기호의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블로쉬노프의 언어철학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언어적 약호 혹은 기호와 그 발음이 단순히 계급성과 사회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블로쉬노프의 관점에서는 계급투쟁적인 의미의 각축장이자 이데올로기적인 다중 억양의 거소로서 다면적으로 조명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기호 ‘Freddy’를 대체할 수 있는 ‘Frederik Eynsford Hill, Esquire’에는 지배체제의 기득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욕망이 개재되어 있다. 히긴스는 거리의 소녀 일라이자를 ‘you squashed cabbage leaf’로 지칭함으로써 일반적인 기표에 이질적인 기의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은연중에 중상류층 남성의 계급적, 신분적 우월의식을 표출한다. 일라이자를 감동케 한 피커링의 ‘Miss Doolittle’은 신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하층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묘한 계급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일라이자의 기표 ‘good girl’에는 착한 소녀, 정숙한 여자, 자주적인 여성이라는 세 가지 기의가 중첩되어 있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받으려는 저항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둘리틀의 기표 ‘undeserving’ 또한 통상적인 의미 이외에 ‘중산층적인 도덕을 거부한다’는 저항적 계급의식을 함축하고 있

다. 기표와 기의가 둘 다 바뀌어 새로운 기호가 된 프레디의 ‘Ahdedo?’에는 몰락한 귀족의 처량한 신세와 구시대적 욕망이 굴절되어 투사된다. 히긴스와 피커링이 표준발음으로 발화하는 ‘marry’에는 중상류층 남자들의 종래의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가 짙게 배어 있는 반면에, 코크니 발음에 익숙한 일라이자와 둘리틀의 ‘marry’는 구속, 억압, 선택, 자유 등의 함의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일라이자의 ‘lady’가 결혼을 매개로 상류층 귀부인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굴곡을 거치며 꽃가게 사장이 되려는 것과 둘리틀의 ‘marry’가 중상류층의 보수적인 제도를 열른 수용하지 않고 구속과 자유 사이에서 선택을 지연하는 것은 기호의 굴절을 통한 의미의 계급투쟁, 즉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상부구조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정이다. 일라이자가 내지른 괴성 ‘Ah—ah—ow—oo!’는 볼로쉬노프의 용어로 말하면 동물적, 생리적 반응인 ‘나의 경험’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비투스형의 형성 및 고착화가 자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자본의 체제에 진입하기 이전의 원초적인 자기 정체성 혹은 주관적인 인간의 고유성에 의해서도 일정 정도 영향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라이자가 결혼상대자로 경제적 무능자인 프레디를 선택하고 꽃가게를 운영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는 것도 자본의 논리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 및 주관적인 정체성과 관련 있다. 쇼의 『피그말리온』은 경제적 토대로부터의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극의 내용과 발화의 다양성 속에서 예시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과 사례는 살펴본 바와 같이 볼로쉬노프의 언어-계급-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쇼는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기계적인 경제결정론을 신뢰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로서 쇼의 지론은 소득의 평등에 기반한 인간의 동등한 삶의 기회, 자유로운 개성 표출, 윤리적 의무 등이었다. 쇼는 인간에게는 사회경제학적 관점으로 포착하기 힘든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러한 인간의 고유성이 사회, 문화, 제도, 이념, 정치 등의 상부구조에 반영된다고 생각한 인문주의자였다. 그의 방대한 희곡과 에세이들이 그가 정치경제학 이론가라기보다 탁월한 인

문주의자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적 특성들이 굴절되어 현실에 반영되는 현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상부구조를 형성하며 그것은 언어와 문화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쇼가 경제결정론을 완전히 부인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연히 벼락부자가 된 돌리틀이 하층민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간직하면서도 중산층적인 결혼식과 신사의 생활방식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백만장자로부터의 상당한 유산상속에 따른 조건 때문이다. 히긴스는 대사관 파티에서 돌아온 후 일라이자와 격렬한 언쟁을 벌이던 중 급기야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반지를 난로 속에 던져버리고 만다. 그런데 사뭇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던 일라이자가 히긴스의 퇴장 직후 무릎을 꿇고 난로 속의 반지를 찾아낸다(81). 상류층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일라이자는 아버지 돌리틀이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모와 결혼식을 올리려는 그의 결정에 실망하며 낙훈으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96-97). 이데올로기의 모든 영역이 각각의 질적인 차이를 유지하면서 토대에서의 변화에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반응한다는 블로쉬노프의 진술은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종심급에서의 경제결정론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쇼는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속에 인간의 주관적 특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현실을 시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를 준비하면서 언어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쇼의 통찰력을 새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피그말리온』의 서문과 희곡 본문은 쇼의 언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 사회경제학적 차원을 넘어 예술과 문화에까지 폭넓게 드리워져 있음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아쉬운 면이 있다면 희극적 설정임을 감안한다 해도 새로운 언어를 흡수하는 일라이자의 언어적 천재성과 청소부 돌리틀의 우연한 유산상속이 다소 비현실적이어서 극의 리얼리티(reality)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한편 쇼의 『피그말리온』이 현대언어학의 선구자인 소쉬르와 야콥슨의 저술들보다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언어학자들의 관찰이 정연한 이론으로 정리되어 학술서의 형태로 등장했다면, 쇼

의 『피그말리온』은 언어가 인간의 의식, 정체성, 사회적 관계, 문화, 예술, 계급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학적 서사와 기법으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쇼의 『피그말리온』은 섬세한 관찰과 예리한 통찰을 현란한 화술과 다면적인 언어로 표현하였기에 볼로쉬노프가 주장한 이데올로기적인 다중역양의 거소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계급투쟁의 장으로서의 언어적 기호와 발화를 미리 예시했다고 볼 수 있다. 『피그말리온』의 수많은 대사와 발화 속에 대표적인 언어학 이론들이 예시되고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이 작품이 문학이나 연극만이 아닌 색다른 언어학 교과서로서도 손색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피그말리온, 언어, 계급, 발화, 기표, 기의, 코크니, 억양, 이데올로기, 볼로쉬노프

## 인용 문헌

- Abla, Ahmed Kadi, and PR. Serir Mortad Ilhem. "Language as a Marker of Social Status in Shaw's *Pygmal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rts, Medicine and Sciences* 4.11 (2016): 79-84.
- Althusser, Louis. *On the Reproduction of Capitalism*. London: Verso, 2014.
- Bentley, Eric. *Bernard Shaw*. New York: Applause, 2002. Print.
- Bernstein, Basil.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London: Routledge & Kegan, 1971. Print.
- Eom, Tae-yong. "Pygmalion: A Sociolinguistic Analysi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1.4 (2019): 47-75. Print.
- [업태용. 「『피그말리온』: 사회언어학적 고찰」. 『영어영문학연구』 61.4 (2019): 47-75.]

- Fann, K.T. *Wittgenstein's Conception of Philosophy*. Trans. Hwang Gyeong-sik, and Lee Woon-hyeong. 1<sup>st</sup> ed. Paju: Seogwang-sa, 2015. Print.
- [K.T. 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황경식, 이운형 역. 제1판. 파주: 서광사, 2015.]
- Fox, Kate. “Linguistic Class Codes.” *Watching the English*. 2<sup>nd</sup> ed. London: Hodder & Stoughton, 2014. 101-16. Print.
- Hwang, Hoon-Sung. “The Dramatization of *Habitus*: A Bourdieu Reading of *Pygmal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5.3 (2009): 383-98. Print.
- Jakobson, Roman.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Language in Literature*. Ed. Krystyna Pomorska, and Stephen Rudy. Cambridge: Harvard U, 1987. 95-114. Print.
- Kim, Hyun Ah. “*Pygmalion*, A Romance That is not Romantic.”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9.3 (2016): 37-63. Print.
- [김현아. 「『피그말리온』, 낭만적이지 않은 낭만극. 『현대영미드라마』 29.3 (2016): 37-63.]
- McGovern, Derek. “From Stage to Hybrid: Shaw’s Three Editions of *Pygmalion*.” *SHAW: The Annual of Bernard Shaw Studies* 31 (2011): 9-30. Print.
- Saussure, Ferdinand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Ed. Charles Bally, Albert Sechehaye. Trans. Wade Baskin. New York: McGraw-Hill, 1959. Print.
- . “II. Language.” *Saussure’s Third Course of Lectures on General Linguistics (1910-1911): from the Notebooks of Emile Constantin*. Trans. Kim Seong-do. Seoul: Minumsa, 2017. 259-301. Print.
- [페르디낭 드 소쉬르 「2부 언어」. 『소쉬르의 마지막 강의: 제3차 일반언어학 강의(1910~1911): 에밀 콩스탕탱의 노트』. 김성도 역. 서울: 민음사, 2017. 259-301.]
- Shaw, George Bernard. *Pygmalion*. 1941. London: Penguin, 2003. Print.

- . *Pygmalion*. 1916. Fairfield, Iowa: 1st World Library, 2004. Print.
- Trudgill, Peter.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London: Cambridge UP, 1974. Print.
- Verschueren, Jef. *Ideology in Language Use: Pragmatic Guidelines for Empirical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P, 2012.
- Vološinov, V. N.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1973. Trans. Ladislav Matejka, and I. R. Titunik. London: Harvard UP, 1986. Print.
- Yoon, So Young. “*Habitus* Represented by Body in *Pygmalion*.”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and American Drama* 25.2 (2012): 189-213. Print.
- [윤소영. 「*Pygmalion*에 나타난 몸의 아비투스」. 『현대영미드라마』 25.2 (2012): 189-213.]



## *Pygmalion.*

### An Analysis Based on Vološinov's Language Philosophy

Abstract

Eom, Tae-yong (Kangwon National Univ.)

This article is aimed at observing multifaceted signs and analyzing their class attributes and ideological properties in lots of lines of verbal wit in *Pygmalion* (1912), a Shavian comedy, in the light of the main theories of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y Valentin Nikolaevič Vološinov.

Vološinov says that word is the ideological phenomenon par excellence and an individual consciousness is only a tenant lodging in the social edifice of ideological signs. He focuses on the dynamic of parole or utterance rather than langue and emphasizes the ideological multiaccentuality and refraction of a sign in utterance while regarding the sign as an arena of class struggle.

The signifier 'Miss Doolittle' of Pickering, which affected Eliza's heart deeply, conceals a cunning class ideology where he intends to keep a moderate distance from the lower class. A signifier of Eliza, 'good girl', expresses a protesting ideology with connoting a virtuous and independent woman. Two signifiers, 'undeserving' and 'marrying', of Alfred Doolittle imply the defiant class consciousness rejecting the morality of the middle class. Freddy's 'Ahdedo?' replacing 'How do you do?' reflects and refracts an outdated desire of a ruined nobleman.

Another signifier of Eliza, 'lady', deviates from the way of economic desire slightly through the ideological refraction. The screech of Eliza, 'Ah—ah—ow—oo!', is a signal of primitive and raw feeling which is hardly structuralized ideologically as a sign of 'I-experience,' a term of Vološinov. These signifiers suggest that the human properties and the relative autonomy of ideological

superstructure exist in the process of the refraction of signs.

Key Words Pygmalion, language, class, utterance, signifier(signifiant),  
signified(signifié), Cockney, accent, ideology, Vološinov

Notes on Contributor:

**Tae-yong Eom** is Lecturer of general English education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dramas of George Bernard Shaw.

Email: [etaeyong@knu.ac.kr](mailto:etaeyong@knu.ac.kr)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15일

논문심사일: 2020년 7월 19일 ~ 7월 30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3일